

The 22th Busan Theatre Festival

제22회

2004

부산연극제

2004년 4월 10일 ~ 5월 3일

주최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주관 : 사람결인 부산광역시 연극협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연극협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PSB 부산방송
BBS부산불교방송, CBS부산방송, 釜山日報, 국제신문

협찬 : 교보생명, 부산은행, BIF (주)마이박스



극단 시나위



인류최초의 키스

작 : 고 연 옥 / 연출 : 오 정 국

4.12(월)~13(화)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월요일 : 16:00 화요일 : 16:30 19:30

연출의 글



연출 / 오 정 국

이 공연을 통해 한 신화를 떠올려 본다. '오디세이아'의 키르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두 가지 상이한 전략 또는 대립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잘 말해 주고 있다. 키르케의 섬에 표류한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그녀의 마법에 걸려 돼지로 바뀐다. 여기서 다만 오디세우스만이 몸은 돼지로 바뀌었지만 정신은 인간의 것으로 남아 자신이 돼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고통스런 '기억'을 유지한다. 바로 이 대목이 루카치를 전율케 했다. 즉 인간은 상품이 되었으면서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따라서 이 소외당한 자신을 회복하려는 고통스런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는 소외 없는 저편의 세계, 구원과 해방의 순간을 기다린다.

반면에 그의 부하들은 구원을 위해 기억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인간성 혹은 소외되지 않은 세계를 붙들고 있는 한 인간은 자유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없고, 자신의 현실을 새로운 창조적 현실로 뒤바꿀 수 없다. 그는 키르케의 마법을 인정하지 않고, 또 현실에 대한 비참감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존재로서 스스로를 창조하는 전략을 세운다.

즐거운 작업에 동참해 주신 선배님 후배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웃는다.

작품줄거리

피감호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사회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청송감호소 이 곳엔 납치 강간범 학수, 폭력전과범 상백, 사기전과범 성만, 그리고 최고령의 방장 동팔 등이 좁은 감방에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며 수형자들의 가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출소 심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판산, 검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학수는 심의를 받지만 그들의 일방적인 편견과 사고방식으로 그는 농락당한다.

그날 이후 학수의 상처 받은 정신은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동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몇 달 뒤 사기전과범인 성만을 심의하기 위해 다시 구성된 사회보호위원회. 그 동안 성만은 자신을 반성하며 종교에 파묻혀 참회의 날만을 보낸 그였기에 위원회 앞에서도 그의 순화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독선적인 위원회는 열성신자인 성만을 되려 종교를 이용하는 악질 사기꾼으로 매도한다. 이에 격분한 성만은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만 한 발의 총성과 함께 그는 고요 속으로 잠이 드는데...

CAST



동팔 / 고인범



학수 / 박상규



상백 / 손안모



성민 / 김학준



심리학자 / 김혜정



변호사,의사 / 윤미경



검사 / 도광원



판사 / 강태욱



교도관 / 배진만

STAFF



대표 / 박상규



무대미술 / 백길성



무대장치 / 유창호



조명 / 장영섭



음악 / 김재욱



의상 / 윤성혜



분장 / 박은주

진행 / 장한란

GUESS ? **게스미용실**

- 고품격·고감각
- 최고의 디자이너
- 최고의 시석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47-9
TEL : (051) 627-3356

원장 황윤영

코오롱B/D ● 맥도날드
 수영R ● 수퍼 ● KBS 대남R-
 화목 APT ● 공항 버스 정류소 ● 게스미용실
 | 황령산입구